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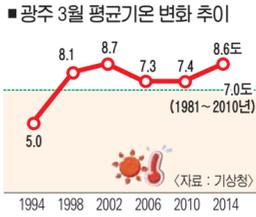
# 봄 이상고온에 농작물 웃자람·병해충 비상

### 작년 매실 큰 피해 좀벌 성충 순천서 발견

### 정읍 벼 애멸구 바이러스 검출률 12%나

봄철 이상 고온현상이 계속되면서 작물의 웃자람 현상과 병·해충 확산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9일 광주 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기준 평균기온은 8.6도로 평년(1981~2010년) 대비 1.6도가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봄철 이상고온이 이어지면서 농작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이상고온은 통상 농작물의 생육을 촉진하고 개화시기를 앞당기지만 병·해충 확산과 함께 웃자람 현상 등이 발생해 작황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순천 매실피해 좀벌 발견=순천시는 지난해 매실에 큰 피해를 주었던 '복숭아씨살이좀벌'(이하 좀벌) 성충이 별량면 등지에서 발견됨에 따라 발생 초기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좀벌은 지난해 피해규모가 120ha로 800t 이상의 매실생산량을 감소시킨 무서운 해충으로, 과실뿐만 아니라 나무 생장과정에도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더욱이 좀벌 피해는 어린 과실에 서야 과실 표면 일부가 갈색으로 합



몰되는 피해증상을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농촌진흥청과 순천대와 연계, 발생형태 및 방제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특히 성페르몬트랩 및 끈끈이 트랩을 활용해 방제 적기를 규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에 좀벌 피해를 입은 농가는 10일 간격으로 2회 정도 방제해야 한다"며 "지역에

따라 방제시기가 큰 차이를 보이므로 꽃잎이 떨어진 후 10일 전후가 1차 방제적기로 초기부터 방제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벼 병·해충 발생 증가 우려=정읍시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조사결과 애멸구 보독충률(벼를 옮기는 애멸구에 바이러스가 검출되는 비율)이 12%로 지난해 4.3%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중국에서 비래(飛來)하는 애멸구 발생을 정밀 관찰조사해 비래량이 많으면 유수화제로 추가 방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센터는 최근 지구온난화 등 기상 이변으로 벼 병해충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벼 병해충 사전 방제를 위해 약제 구입비로 시비

10억원을 지원한다. 센터는 시비와 별도로 자부담 10억원을 추가한 총 20억원을 들여 사전 방제약제 19만개를 관내 전체면적에 지원할 방침이다. 애멸구가 매개하는 줄무늬마름병은 한번 발생하면 사실상 방제가 불가능하다. 줄무늬마름병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바이러스를 옮기는 애멸구를 방제하거나 저항성 품종을 선택해 심어야 한다.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최근 이상고온 기후로 인해 풀밭 병·해충 발생 빈도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에 대비해 병·해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 영농과 농업 경쟁력을 높여왔다. 도내 저지대 상습 침수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는 총 180지구 6만7541

## 여수 소라면 복산지구 등 5곳 360ha 전남도, 300억 들여 배수 개선사업

전남도는 올해 배수 개선사업 대상지구로 여수 소라면 복산지구 등 5개 지구 360ha를 확정, 국비 300억원을 확보해 연말까지 기본조사를 완료하고 2015년부터 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그동안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가 되풀이되는 저지대 농경지에 배수시설을 설치하는 배수 개선사업을 통해 농작물 침수를 방지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 영농과 농업 경쟁력을 높여왔다. 도내 저지대 상습 침수 배수개선사업 대상지는 총 180지구 6만7541ha로 1조261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2013년까지 8471억원을 투입해 128지구에 2만9171ha를 완료했고, 올해도 20지구 6413ha에 607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올해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 지구로 확정된 여수 복산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서는 저지대 농경지 매립과 토사 퇴적을 비롯한 수초 제거를 위해 흡수수로에 친환경적 저수율로 설치하고 배수장, 배수문, 저류지 준설 등의 사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무안 천일염 종합처리장 정계 농공단지내 문열어

무안군 천일염 생산 어업인들의 숙원인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이 지난 8일 정계 제2농공단지 내에 문을 열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산지 종합처리장은 지난해 10월 착공했으며 사업비 20억8000만원이 투입됐다.

종합 처리장은 천일염 가공의 노후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청수식품이 어민과 함께 10억원을 출자하고, 무안군이 사업비 10억 8000만원을 지원했다.

종합 처리장은 무안에서 생산되는 7000여t의 천일염을 수집하고 저장, 포장,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최첨단 친환경 위생시설로 건립돼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최고 품질의 웰빙 소금을 출하해 무안 천일염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무안군은 비위생적인 염전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 2011년부터 1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염전 바닥재 개선, 슬레이트 제거사업, 포장층기 균일화를 위한 포장재 지원사업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무안지역에서는 염전 26곳이 운영중이다. /무안=김민준기자 jun@



임업 후계자 나무심기

장성군 공직자와 임업 후계자들이 최근 남면 녹진리 아산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 이번 나무심기 행사에서는 편백나무와 목백합나무 7600그루가 식재됐다. <정성근 제공>

## 맥주·복분자 찌꺼기 활용 한우 발효사료 개발

### 나주 일우 영농조합법인, 특허 등록

나주지역 한 중소기업이 한우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발효사료를 개발해 논길을 깔고 있다. 일우 영농조합법인(대표 김연희·사진)은 7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한우 발효사료를 개발하는데 성공, 지난 3월 발명 특허등록을 획득했다. 새로 개발된 사료는 혼합건초와

곡물, 강피류, 당박 등 8가지 이상의 재료를 활용해 발효시켰다. 특히 맥주와 복분자찌꺼기를 만들고 난 찌꺼기(당박)를 업체에서 제공받아 미생물 유입과 산소를 차단해 자연숙성시키는 '혐기(嫌氣) 발효' 기술이 가장 핵심적인 공정이다. 이번에 개발된 사료를 한우 9마리

를 대상으로 지난 2008~2010년 2년간 먹여 키운 결과 일반 한우에 비해 당계는 144일까지 비육(肥育)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우도체 등급판정에서 9마



김연희 대표. 이번 연구개발 끝에 한우 발효사료를 개발하는데 성공, 지난 3월 발명 특허등록을 획득했다. 새로 개발된 사료는 혼합건초와

리 모두 1등급 투플러스와 1등급 투플러스 A까지 획득해 경쟁력이 입증됐다. 이를 이용한 한우축사는 약취와 파리가 없고, 감기 감염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강한 친환경 한우를 생산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김연희 대표는 "축산시장의 수입 자율화로 인한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발한 발효사료를 사용하면 사육경비를 절감하는 물론 기존한우와 차별성 있는 고부가가치 한우를 생산, 농가 소득 증대에 한층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 화순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문화콘텐츠 개발

### '공룡의 나라 화순' 동영상

화순군이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천연기념물 제487호)를 활용해 문화콘텐츠 상품을 개발했다. 화순군은 최근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를 활용한 동영상 '공룡의 나라 화순'을 제작했다. 동영상은 3D 입체영상과 일반영상, 애니메이션 동영상 등 3가지 종류로 제작됐다. 동영상은 최신 영상기술인 3D 컴퓨터 기법을 활용해 단순한 문화재를 소개하는 차원을 떠나

8000~1억여 년 전 화순에 살았던 공룡들의 활동상을 스토리텔링화해 제작했다. 이 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을 통해 전액 국비사업으로 이뤄졌다. 화순군 관계자는 "북면 서유리 공룡발자국 화석 산지 관리사무소에 영상실을 만들어 이번 제작된 영상물을 상영하고, 관내 학교에서 교육자료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북면 서유리 일대에는 육식공룡과 초식공룡의 발자국 1800여개가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 화순경찰, 북 이탈주민 정착 돕기 나서

### 평동 지역협의회와 업무협약

화순경찰이 북한 이탈주민의 한국 사회 정착을 돕는다. 화순경찰서(서장 이성순)와 민주평통 화순군지역협의회(회장 홍남)는 9일 서정실에서 북한 이탈주민 사회 조기 정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사진>

이성순 서장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안정적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과 민주평통 화순지 역협의회가 지원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홍남희 회장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탈북민들의 취업알선과 법률 자문, 장학지원 사업 등을 돕겠다"고 말했다. /화순=조성수기자 css@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M.H.타사 **130만원** 신제품 기적중얼까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입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NAVER 주소(D) 대산프리모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출연 (백명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결혼정보** 빠른 성사! 결혼성사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대년재직 [광주서초초등학교출연, 전주고등학교출연] 서울대학교총동창회 결혼정보서비스업체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판사, 검사, 변호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변호사	26~39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부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의사, 변호사
			32~65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학원(음악)원장, 감사
			27~63세
			공무원, 교사
			32~58세
			간호사, 회사원
			29~48세
			자영업, 가사
			35~64세
			'무자녀 남성' 희망
			28~48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8층 (02) 521-4405 호남지사 (민주시 서산동) (063) 275-7766